

# HONG KONG LINER



## 홍콩재정부총리는 비즈니스 지원 및 홍콩 경제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한 정부예산안 발표

폴 쉐 홍콩재정부총리는 지난 2월 24일 발표된 2021-22 정부 예산안에서 홍콩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극복 지원, 기업체들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팬데믹 이후 재건에 대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를 제시하였다.

쉐 재정부총리는 “올해 예산안은 경제 안정화와 서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200억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기대응적 조치 도입을 통해 경기침체 및 전염병으로 기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홍콩 시민과 근로자,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기술, 관광 등 홍콩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이번 예산안 시행은 홍콩 산업에 새로운 원동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상호작용하는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쉐 재정부총리는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기업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홍콩 영주권자와 18세 이상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총 5천 홍콩달러 상당의 전자소비쿠폰을 분할 발행하여 지역 소비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라고 쉐 재정부총리는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로 약 360억 홍콩달러의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이며, 약 72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주요 예산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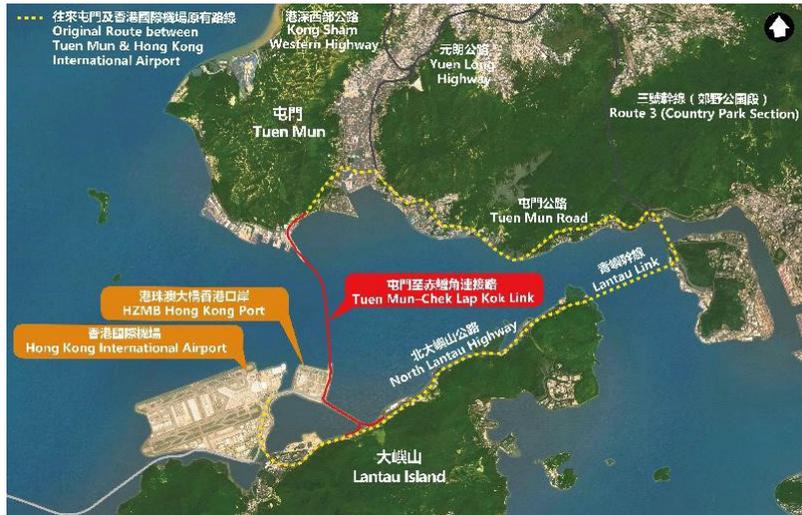
지난 2월 24일 '2021-22 정부예산안'을 주제로 텔레비전 패널 토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폴 쉐 홍콩재정부총리

# 툰먼-첵랍콕 연결도로 북부구간 신규 개통으로 홍콩 공항 방향 교통량 감소

홍콩에서 가장 깊고 긴 해저터널인 툰먼-첵랍콕 연결도로 북부구간이 2020년 12월 27일 개통되었다. 북부구간은 2018년부터 개통 운영 중인 남부구간과 함께 북서 신계 지역을 홍콩국제공항 및 란타우 북부 뿐만 아니라 강주아오대교와 홍콩출입경심사구역까지 연결하는 전략

적 루트를 형성한다.

길이 5.5km의 북부구간 중 5km는 툰먼 남부에서 홍콩출입경심사구역까지 뻗어있는 해저터널인 툰먼-첵랍콕 터널이 차지한다. 북부구간이 개통되면서 툰먼 남부와 공항 간의 이동 거리는 약 22km가 짧아



툰먼-첵랍콕 연결도로 북부구간이 개통되면서 툰먼 남부와 홍콩국제공항 간 이동시간이 약 20분 단축된다.

지고, 이동 시간은 약 2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에서 해저 터널 굴착을 위해 대구경 터널굴착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사에 배치된 터널 굴착기 중 하나는 지름이 17.6m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굴착기이다. 터널 굴착기를 도입하여 현재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 우회 필요성을 줄였으며 터널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캐리 램 행정수반은 “북부구간이 개통되면서 홍콩을 세계 다른 지역 및 대만군 본토 도시들과 연결해주는 항공 및 육상교통 ‘이중 관문’인 란타우에 더욱 뛰어나고 안정적인 운송 인프라를 공급하여 홍콩의 국제 및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형 굴착기: 이번 터널 굴착을 위해 지름이 6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터널 굴착기가 배치되었다.

##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기회와 도전을 모색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아시아 금융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금융, 투자 및 비즈니스 분야의 기회와 도전을 모색하였다.

'세계 경제 환경 재편'이라는 주제로 양일간 개최된 포럼은 코로나바이

러스 대유행, 무역분쟁,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의 물결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혁신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참가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포럼은 약 7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63,0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접속하였으며 700건 이상의 일대일 매칭 회의를 주선하였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재정사무국고장관(좌측)은 '세계 경제 환경 재편'이라는 주제로 총회 세션을 주재했다. 총회 세션에는 피에르 그라메나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윗줄, 좌측 첫 번째), 진리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 겸 의장(아랫줄, 좌측 첫 번째), 반다르 하자르 이슬람개발은행 총재(아랫줄, 우측 첫 번째), 마르쿠스 트로이주 싱가포르 은행 총재(아랫줄, 가운데), 유럽투자은행 부총재를 맡은 테레사 체르빈스카 교수(윗줄, 우측 첫 번째) 및 손 플레밍 아일랜드 재무부 국무장(아랫줄, 가운데)이 참석하였다.

## 정부관료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모여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 제5회 일대일로 서밋



캐리 램 행정수반은 서밋 개막식에 서 화상으로 개회사를 전달했다.



다른 연사로는(첫번째 줄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폴 첸 홍콩재정부총리, 닝지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왕빙난 중국 상무부 차관, 런홍빈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셰펑 당시 중국 외교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특파원공사 위원장,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하였다.



제5회 일대일로 서밋(Belt and Road Summit)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약 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6,0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캐리 램 행정수반은 개회사에서 광범위한 혁신을 불러오고 풍부한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서 있는 지금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15개 국가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램 행정수반은 홍콩의 RCEP 가입에 대해 RCEP의 일부 회원국들이 분명한 지지를 표명해주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홍콩의 파트너십 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콩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참여주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협력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일대일로 서밋은 홍콩특별행정구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주제별 세션, 가상 전시회 및 비즈니스 매칭 등을 선보였다.



에드워드 야우 상무경제발전장관(좌측)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정책 대화 세션을 주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및 태국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위해 2월 23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의료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노인인과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직원, 필수 공공 서비스직 종사자, 국가 간 운송직 종사자 혹은 검문소 및 항구 직원 등)에 대한 온라인 예약접수가 시작되었다.

이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이 30세-59세 이하 일반인, 홍콩 영외에서 수학하는 16세 이상 학생, 가정 도우미에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세 종류의 백신을 총 2,250만 도즈 구매하였으며, 이는 홍콩의 모든 사람이 접종받기에 충분한 물량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통제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상황과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여 사회 및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월 18일부터 식당 운영 시간제한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되고 테이블당 최대 허용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단, 식당들은 일련의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 헬스장 및 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의 운영도 2월 18일 부터 재개되었다. 또한, 2월 24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단체 모임 허용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완화되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 정부는 탑승 제한과 의무 격리 조치를 유지

격리 중인 투숙객과 타 현지 호텔 투숙객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을 더욱 차단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홍콩 도착 당일 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종사자들



지역백신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우선 접종 대상자들

그 이전 21일 동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하다가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여행객은 지정된 방역호텔에서 21일 동안 의무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항공편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경은 계속해서 제한된다.

## 홍콩에 관한 원스톱 정보 포털 웹사이트 'Hong Kong Welcomes U'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hkwelcomesu.gov.hk](http://www.hkwelcomesu.gov.hk)

'Hong Kong Welcomes U'는 홍콩으로의 취업, 투자 유학 등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포털 웹 사이트이다. 홍콩의 사회, 휴양,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투자, 이민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홍콩으로의 이주와 거주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지원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021-2022 정부예산안 하이라이트

## 전염병 극복

## 기업 지원

- 기업대상 100% 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신청 기간을 올해 말 까지로 연장하고 대출 금액 상한선을 6백만 홍콩달러 까지 상향 조정. 대출 상환기간과 원금상환유예기간 연장
- 2020-2021년 회계연도분 사업소득세를 최대 1만 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100% 감면
- 2021-2022년도 분기별 비주거용 부동산세 감면. 첫 1, 2 분기에는 각 분기별 최대 5천 홍콩달러, 나머지 두 분기에는 각 분기별 최대 2천 홍콩달러 상한 적용
- 2021-2022년 사업자 등록 비용 면제
- 계속해서 비주거용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을 8개월 동안 75% 면제. 상수도 월 상한 2만 홍콩달러, 하수도 월 상한 12,500 홍콩달러를 각각 적용
- 계속해서 정부 소유 건물/단기 세입자 대상 임대료 6개월 동안 75% 감면 (정부 요청으로 폐쇄 시 100% 감면)

## 교육 지원

- 제4차 특별애호증가계획(Love Upgrading Special Scheme)을 시행하여 더 많은 취업훈련 기회와 온라인 코스를 제공
- 교육지속기금(Continuing Education Fund)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코스까지 포함
- 66억 홍콩달러를 배정하여 약 3만개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 서민 부담 경감

-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100% 대출 신용보증 설정
- 실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금조달 방안 제공
- 대출 상한액은 8만 홍콩달러이고 신청 기간은 6개월
- 이율은 연 1% 고정이율이며 최대 상환 기간은 5년
- 첫 12개월은 원금상환유예. 대출금이 예정대로 전액 상환된 이후 납부된 이자에 대한 변제 제공
- 2020-2021년도의 개인 소득세와 근로 소득세를 상한 1만 홍콩달러까지 100% 면제
- 2021-2022년 분기별 주거용 부동산세 감면. 첫 1, 2분기에는 각 분기별 최대 1,500 홍콩달러, 나머지 두 분기에는 각 분기별 최대 1,000 홍콩달러 상한 적용
- 각 주거용 전기 계좌 별로 1,000 홍콩달러 보조금 제공
- 기본 종합사회보장지원보조금(CSSA), 노령 수당 및 노령 생활 수당, 장애 수당 수령인에게 추가 반 달치 수당 지급.

근로가족수당 및 개인근로성과보수운송보조금 수령인에게도 유사한 혜택 제공 예정

- 2022년 대입수학능력시험(HKDSE Examination) 수험료 면제
- 노후건물 3,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수리공사 보조를 위해 10억 홍콩달러 예산 배정

## 경제 활성화

- 지역 소비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 및 18세 이상 신규 입국자에게 5,000 홍콩달러 상당 전자소비쿠폰 분할 발행
- 브랜딩, 업그레이드 및 내수판매전용기금에 15억 홍콩달러를 투입하고 기업당 자금지원 한도를 6백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 단계적으로 지리적 범위도 확대 예정
- 홍콩무역발전국(HKTDC)에 3억7천5백만 홍콩달러를 배정하여 온라인 활동 조직과 디지털화 추진 역량 강화
- 홍콩무역발전국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독창적인 제품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
- 'iAM Smart' 디지털 인증 플랫폼의 비즈니스 버전 개발
- 2022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정부 양식 및 허가신청서에 대한 전자제출 수단 제공
- 2022년 중반부터 대부분의 정부 공과금 및 허가증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결제(e-payment) 옵션(신속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 System 포함) 제공
- 홍콩 법률 클라우드(Hong Kong Legal Cloud) 개발 모색

## 관광산업 지원

- 지역 문화, 유산 및 창조 관광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1억6천9백만 홍콩달러 예산 배정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콩관광청(HKTB) 지원에 7억6천5백만 홍콩달러 예산 배정
- 홍콩관광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 관광산업의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관광산업 회복 촉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
- 공중 보건 안전이 보장된다면 지역 그룹 투어 재개를 고려하여 관광 산업 비즈니스 운영 여지를 허용
- 적절한 지역과 에어 트래블 버블(Air Travel Bubble) 협정 논의 및 추진

## 경기부양

### 금융 서비스

- 올해 실버채권 240억 홍콩달러 이상, 물가연동채권 150억 홍콩달러 이상 발행. 실버채권 가입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 향후 5년간 총 1,755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소매녹색채권 발행 계획
- 채권발행 및 외부검토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지속가능금융지원제도(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Grant Scheme) 도입
- 연내 남향통(Southbound Trading of Bond Connect)도입 추진과 홍콩 중앙결산시스템(Central Moneymarkets Unit) 강화
- 홍콩에 상장되는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대한 보조금 제공
- 발행비용 지원을 위해 시범 보험연계증권지원제도(Pilot Insurance-linked Securities Grant Scheme)도입
- 개방형 펀드 운용사 홍콩 설립 혹은 이전을 위한 보조금 제공
- 가족기업 관련 세제혜택 검토

### 혁신과 기술

- 2억 홍콩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여 '기술혁신에 대해 더 알기(Knowing More About I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I&T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강화 및 과외활동을 통해 적용할 기회를 제공
- 현지 대학교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단기 I&T 관련 인턴십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범제도를 정규화
- 2년에 걸쳐 혁신기술기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에 95억 홍콩달러를 투입
- 홍콩금융관리국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핀테크 감독 샌드박스(Fintech Supervisory Sandbox) 강화 검토
- 록마차우 루프의 홍콩-선전 혁신 및 기술 연구단지(Hong Kong-Shenzhen Innovation and Technology Park) 개발 추진에 박차
- 홍콩사이언스파크(HKSTP) 확장과 홍콩사이버포트(Cyberport) 5단계 개발 지속 추진
- 5G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속 지원
- 올해 1분기에 InnoHK리서치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라 약 20개 연구개발실의 1차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시

### 항공 화물 부문

- 기존 익스프레스 항공화물 터미널을 확장하고 신규 프리미엄 물류센터 및 제3할주로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홍콩국제공항의 연간 화물취급량은 2024년 약 9백만톤까지 증 대될 것으로 기대
- 홍콩이 국제 항공화물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을 통한 환적을 촉진하는 방안 모색
- 홍콩국제공항의 항공우편센터를 재개발하여 빠르면 2027년 말부터 운영 개시

### 문화 및 창의 산업

- 'CreateSmart사업'에 10억 홍콩달러 추가 투입

### 건설산업

- 정부 중간관리자의 전문 기술을 향상하고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
- 산업전반에 걸쳐 비용관리문화를 장려
- 모듈러통합건축(MiC) 방식과 공공사업의 디지털화 지속 추진

## 살기 좋은 도시 건설

### 녹색 도시

-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홍콩 최초 로드맵 발표, 시행조치로는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내연기관 자가용의 신규 등록 중단 포함
- 2021년 중반까지 개선된 홍콩 대기청정계획(Clean Air Plan for Hong Kong) 수립 완료
- 정부 건물 및 인프라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를 위해 10억 홍콩달러 배정
- 사회복지 비정부기구(NGOs)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 시행과 에너지절약기구 무료 설치를 위해 1억5천만 홍콩달러 배정
- 재활용 기금(Recycling Fund)에 10억 홍콩달러를 투입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

### 교통 혼잡 해소

- 과세구간별 자가용 최초 등록세(자가용 전기차 포함)를 15% 인상하고 차량 면허료를 30% 인상
- 운수사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센트럴에서 자동징수시스템(Electric Road Pricing) 시범제도 지속 운영

## 삶의 질 향상

- 도시 외곽공원 시설 개선에 5억 홍콩달러 배정
- 도시 외곽 등산로 개선에 5,500만 홍콩달러 배정
- 축구장 개보수를 위한 5개년 계획 시행에 약 3억 홍콩달러 배정
- 하버프론트 개선 사업 지속 시행

## 의료 시스템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1억4천7백만 달러 배정
- 의료관련 교육시설 개선 및 증설을 위해 대학과 협력 지속
- 향후 2년 안에 지구건강센터(District Health Centre) 2개소의 운영을 개시하고 올해 안에 기타 11개 지구에 응급지구 건강센터(DHC Expresses)를 설치
- 제1차 10개년 병원발전계획(HDP) 시행과 제2차 10개년 병원발전계획 수립 추진

## 돌봄과 포용

- 고령자 서비스: 향후 몇 년 안에 거주보호시설 약 8,800개소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간 돌봄 서비스 시설 약 2,800개소 공급
- 재활 서비스: 2022/23학년도에 미취학 아동 대상 현장 재활 서비스 시설을 1만개까지 증설
- 절실히 필요한 사회복지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에 11억 홍콩달러를 투입

## 토지 및 주택

- 2021-2022년도 정부토지매매계획에 따르면 철도 부동산 개발과 민간 개발 및 재개발 프로젝트의 잠재적 주택용지 공급은 약 16,500호 정도이며, 또 다른 3개 상업용지는 약 48만 제곱미터의 용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신규 개발구역 프로젝트 및 계획중인 기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및 기타 토지 용도로 재개발될 수 있는 신계 지역의 브라운필드 단지 총 860헥타르 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구룡 동부의 5개 상업부지를 대상으로 주거용도로 재구획 타당성 조사, 용도전환 시 총 5,800호 정도의 민간주택 공급 예상
- 공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약 40개의 정부, 기관 혹은 지역 사회 대지를 검토하고 올해 개발 제안서 제출
- 산업용 건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요율'에 따라 토지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시범제도를 이번 분기에 도입

## 주택 공급

- 공공주택: 2020-2021년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약 101,400호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공공 임대 주택/그린 폼 보조 주택 제도(Green Form Subsidised Home Ownership Scheme)에 따른 70,000호 이상과 보조금 판매 주택 30,000호 이상으로 구성될 전망
- 민간주택: 2021년부터 5년 동안 공급 예상되는 연평균 민간 주택은 18,000호 이상

## 공공 재정

### 공공 재정

- 2020-2021 회계연도: 2,576억 홍콩달러 적자 예상
- 2021-2022 회계연도: GDP의 3.6%에 해당하는 1,016억 홍콩달러 적자 예상, 주된 이유는 경기대응 재정정책 및 지속되는 경상비 지출 증가
- 2022-2023년부터 2025-2026 회계연도: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며, 주된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분이 정부수입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특히 경상비 지출)
- 정부지출은 부채 정리기간에 접어들 전망. 장기적인 재정지출 계획은 수입 증대를 고려하여 수립 필요
-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영역 파악 필요
-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적 여력 증진
- 개선의 여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율 시스템 검토

### 지출 절감

- 2021-2022년 회계연도 기간 공무원 시설 증설 계획 없음
- 시민생계 관련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2022-2023년 회계연도 기간 정부 경상비 지출을 1% 절감. 약 39억 홍콩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

### 수입 증대

-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 주식 이전에 대한 인지세를 현재 각 거래대가 혹은 거래가치의 0.1%에서 0.13%로 인상
- 사업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을 개정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바, 정부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조정 예정
- 신규 세금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바, 정부는 관련 연구를 시행하여 적절한 시기에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SPOTLIGHT HONG KONG

**황혼에서 새벽까지 – 홍콩의 마법 같은 풍경**

홍콩의 여러 명소에서 찍은 멋진 풍경 사진들을 즐겨봅시다.



일찍 기상하면 홍콩섬의 피크(The Peak)에서 일출과 함께 도시의 완벽한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해가 질 녘 비콘 힐(Beacon Hill)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이 내려앉고 구룡반도를 가로질러 서서히 불빛이 들어온다.



팍 나이(Pak Nai) 맹그로브에서 본 석양

**스타페리 부두의 색채 향연**

홍콩 현지 아티스트 제인 리('Messy Desk'라고 불리기를 선호)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침사추이의 스타페리 부두(완차이행 페리)에서 최신 걸작을 공개했다. 홍콩의 스카이라인, 문화 및 활동을 담아낸 다채로운 벽화는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스타페리를 타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최근 다채롭게 단장한 빅토리아 하버프론트**

완차이 하버프론트 산책로 구간은 초콜릿 레인(Chocolate Rain)의 작가이며 다수 수상경력이 있는 프루던스 맥의 다채로운 작품과 오리지널 캐릭터들 덕분에 활기를 띤다.

